

7월 1일부터 돼지고기도 육질등급 판정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7월 1일부터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같이 육질등급에 따라 등급 판정을 실시하여, 소매단계에서도 소비자들이 품질에 의해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돼지도체등급은 현재 규격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단일등급(A, B, C, D)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요구하는 양돈농가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격등급(A·B·C·D)과 소매단계 연계를 위한 육질등급(1⁺·1·2·3)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육질등급은 육색, 지방색과 질, 조직감, 지방침착도, 삼겹살 상태, 결합 등의 항목별로 판정하게 되며, 이러한 육질등급판정을 통해 돼지고기의 육질향상에 기대를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금번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정(안)은 국내산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육질등급을 도입함으로써 수입 돼지고기와 차별화로 양돈농가의 불안감 해소 및 국내 양돈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정(안)의 본격 시행에 앞서 개정된 기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5월에는 전 직원에 대한 품질(육질)등급제 직무교육과 함께 전국 14개 작업장에서 시범적용을 하였으며, 6월에는 전국의 모든 돼지

작업장으로 시범적용을 확대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홍보 및 대외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돈개량을 위해 검정대상에 체고와 체폭 포함시켜야

경남 첨단양돈연구소 도창희 소장은 한국동물자원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된 ‘돼지 생체에서 부분육 형질의 추정’ 논문을 통해 “삼겹살과 목심 등 돼지 선호부위 생산량 증대가 가능한 중돈개량을 위해 검정대상에 체고와 체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도창희 소장에 따르면 선호부위 생산량 제고를 위한 돼지개량 방법 개발을 위해 4개의 교잡계통돈 돼지 432두에 대해 시기별 생체 측정치와 도축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검정형질만으로는 생체상태에서의 정확한 부위별 생산량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체고와 체폭을 포함시켜 회귀식 통계기법을 적용, 삼겹살과 목심 등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위의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80% 수준의 정확성을 가진 결과를 산출해 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활용, 도축을 하지 않은 생체 상태에서 선호부위 생산량이 많은 중돈 선발을 통한 집중개량에 나설 경우 한국시장에 적합한 중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유전력이 높은 형질인 만큼 몇세대를 거친 노력만 이뤄진다면 괄목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다만 검정개시와 출하시 보다는 검정종료 시 체측정치를 이용할 때 부분육 형질 예측의 정확도가 높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선호부위를 평가, 유전적으로 수율을 개선하거나 생산량을 늘릴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돼지도체등급판정 전월比 3.6% 늘어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에 따르면 돼지도축두수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지난달 돼지도체등급판정두수는 1백15만8천4백40두로 전월대비 3.6%, 전년동월 대비 무려 10.3%가 각각 늘어났다.

통상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5월에는 돼지출하가 줄면서 도축두수 역시 감소하는게 지금까지의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돼지도체등급판정이 의무화된 이래 5월 판정실적이 전월에 비해 늘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도축두수 역시 지난 10년동안 2000년도 단 한해만 5월 물량이 늘어났을 뿐 나머지 해에는 소폭이라도 감소세를 보여왔다.

5월 물돼지 7.2% 판정...출현율 급증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돼지냉도체 육질등급판정

결과 지난달 물돼지(PSE육) 출현율이 급격히 상승, 돈육품질 저하가 의심되고 있다.

등판소에 따르면 지난 5월 1만7천6백49두에 대해 실시된 냉도체 육질판정에서 7.2%인 1천2백78두가 물돼지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년동기와 비교해 0.7%가 낮아진 것이나 전월의 6.5% 보다 0.7%P가 높은 것으로 물돼지 출현율이 7%대를 넘은 것으로 올들어 처음이다.

성별로는 7.8%를 기록한 암돼지의 물돼지 출현율이 가장 높았으며 수돼지 7.3%, 거세 6.8%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달 1+등급 출현율은 2.3%, 1등급은 23.6%를 각각 기록하며 올평균치를 다소 웃돈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자금 지원시 3년내 HACCP 인증받아야

농림부는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대책'에서 "앞으로 정부의 시설자금을 지원받는 축산농가는 3년 이내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소득차이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불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현재 도축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HACCP를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대폭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사육농가의 50%이상, 판매단계까지를 포함해 전체 대상의 20% 이상이

HACCP 적용을 받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육시설 현대화, 개량시설 현대화, 친환경축사 설치를 위한 자금지원시 3년 이내에 HACCP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농가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친화형 축사 조성시 직불금을 주는 환경친화축산농장직불제도 제도입되며 항생제 내성균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초기 대응 가능토록 교육과 홍보활동 강화 중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구제역 유입위험이 높은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농림부를 비롯한 검역원과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가에서 여전히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지 국내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방역대책을 평시방역체제로 전환하여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시방역 추진방향은 구제역의 국내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홍보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처리실태 점검

농림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분뇨 방출로 인한 하천오염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이뤄진 이번 점검 기간 동안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하천주변 및 해양배출 농가를 집중 점검하였다.

특히 지붕이 없는 액비 저장조의 경우 사전에 저장조 여유공간을 확보토록 지도하는 한편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실태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에는 각 시·도,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등과 합동으로 5개반, 19명이 투입되었다.

해양배출 가축분뇨 25개 항목 성분검사 강화

가축분뇨 해양배출시 요구되는 25개 항목에 대한 성분검사가 그대로 강행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연구용역 사업을 통한 전문검사기관의 가축분뇨에 대해 중금속 등 25개 항목을 정밀 분석한바, 일부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고 일부항목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소량 검출되었으나 전체 25개 항목 모두에서 검출되고 있다

며 성분검사 항목을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5개 항목 처리기준이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하수, 폐수,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 동식물폐기물폐수 등 다른 폐기물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어 가축분뇨만 축소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성분검사 신청을 하고 가축분뇨 성분검사 기간(‘07.7.1~’08.1.31)내 검사를 받은 후 위탁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또 성분검사를 하더라도 검사결과가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탁신고갱신을 할 수 없으므로 시설개선 및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 사전 성분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 ‘06.2.21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08.2.22부터 처리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신고필증 효력은 ‘08.2.21 까지다. 새롭게 바뀐 처리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 성분검사 결과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법 시행 이전에 시설개선 및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신고필증을 갱신하지 않고 처리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해양배출 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위탁업체 : 1년이하 징역 및 500만원이하 벌금 / 배출업체 : 200만원이하 벌금과 행정처분)

◎ 가축분뇨 성분검사 기간 : ‘07. 7. 1~’08. 1.

31

- 1개 폐기물 시료검사에 약 30일이 소요됨.
- 폐기물 종류별 검사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검사신청을 할 경우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축분뇨 성분검사 및 위탁신고 절차

• 성분검사 신청 → 시료채취 → 성분검사 → 검사성적서 교부 → 위탁신고(변경)신청 → 서류검토 → 위탁신고필증 교부(신규 또는 갱신)

※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처리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탁신고 갱신을 할 수 없음.

자연재해 보상 2011년부터 전면 중단

정부가 2011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축사 및 가축입식시설, 온실 등에 대한 지원부담률은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되어 2011년부터는 지원되지 않는다.

재해로 인한 축사파손 및 유실의 경우에는 2008년도 지원부담률이 30%에서 2009년도 20%, 2010년도 10%로 축소된 뒤 2011년부터 지원이 전면 중단되며, 가축입식의 경우에도 2008년도 지원률 40%, 2009년도 20%, 2010년도 10%, 2011년 전면 중단으로 이어진다.

최근 정부가 재해보상을 이처럼 대폭 축소하면

서 중단키로 한 것은 2008년부터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농작물재해보험법 등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고기 소비자 불만 가장 낮아

돼지고기가 육류 가운데 소비자 피해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연간 축산물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는 300~400여건에 이르지 만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2건으로 쇠고기 35건, 닭고기 26건에 비해 축산물 가운데 가장 적었다.

또 포장육에 대한 피해접수 건수도 돈육이 8건 인데 비해 쇠고기와 닭고기가 각각 22건, 10건으로 돼지고기보다 많았다. 이밖에 햄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시지도 12건, 기타 184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 크게 증가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양돈사료 생산량은 비육돈육을 제외한 전품목에 걸쳐 증가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4.9%, 전년동월 대비 무려 8.3%가 각각 늘어난 45만2백30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양돈사료는 모두 1백83만8천

4백52톤이 생산돼 전년동기 보다 6.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달 양돈사료 생산량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젓돼지 사료가 전월과 비교해 8.8%가 늘어난 11만8천2백2톤을 기록한 가운데 △젓먹이 돼지 2만6천19톤(전월대비 1.7%) △육성돈 전기 12만8천4백99톤(3.5%) △육성돈 후기 5만8천2백67톤(2.8%) △비육돈출하 1만1천6백75톤(14.5%) △번식용수돼지 9백49톤(21.5%) △번식용암돼지 1천8백60톤(15.6%) △임신돼지 5만7천2백51톤(4.6%) △포유돼지 4만1천6백71톤(2.8%) 등이다.

반면 비육돈 사료는 4.0%가 감소한 5천8백37톤 생산에 그쳤다.

돼지고기 다이옥신 허용 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의 다이옥신 잔류 허용 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경우 2.0pg(피코그램 : 1조분의 1g), 쇠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3pg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동안 1g 당 5pg 이하로 규제 받던 수입육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 받게 되었다.

한편 다이옥신은 발암물질로 동물의 체내 지방 조직에 축적되고 먹이 사슬을 통해 점차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양이 축적된다.

수입 돼지고기 불합격 급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5월말 축산물 불합격 물량은 24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8톤에 비해 23.6% 감소하였다. 그러나 불합격된 돼지고기(죽 포함)는 146톤으로 작년 동기 22톤 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쇠고기는 14톤으로 일년전 58톤 대비 1/4로 줄었다.

이에 금년 전체 불합격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동기간 7%보다 53%p가 높아졌다.

경기, 축분뇨 바이오가스 산업 메카 '부상'

경기도가 국내에서는 아직 초보단계인 바이오가스플랜트를 활용한 가축분뇨 처리의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중동과 유럽의 3개국을 방문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독일의 세계적인 환경 재생에너지 기업 엔비오(ENVIO)사와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을 위한 1억불 투자유치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엔비오사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1기의 시범 운영을 통해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성 있는 운영 기술을 확보,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축산 농가 밀집지역에 약 15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

이다.

국내에 지어질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설은 1일 3백톤, 연간 10만톤의 분뇨처리능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내 1개지역을 선정, 올 하반기 중 약 80억원을 투입해 바이오가스플랜트 1기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는 최첨단 바이오플랜트 회사들과의 기술 교류를 적극 확대해 경기도를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산업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엔비오사의 바이오가스플랜트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국내 축산업계의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신기원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가스과 전기, 양질의 퇴비까지 활용할 수 있게돼 농가소득 증대라는 시너지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1분기 육가공품 생산량 증가

육가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가공품의 생산량은 3만1천99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 가량 늘었다.

품목별로는 소시지 1만671톤, 베이컨 668톤, 캔 6천738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4.8%, 9.7%, 5% 증가한 반면 햄은 1만3천913톤으로 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판매량은 전품목에서 증가해 3월말 3만1천961톤으로 일년전 3만586톤보다 4.5% 많았던 것

으로 집계되었다.

돼지고기 수입 감소세

농림부에 따르면 5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2만2천642톤으로 전달 2만6천868톤에 비해 15.7% 줄면서 4월 이어 두 달째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5월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천톤에 견줘서는 18% 가량 많은 양이지만 금년 월별 수입량 가운데서는 가장 적었다.

이 가운데 냉장육 수입은 1천388톤으로 전달 1천205톤보다 15% 늘은 반면 냉동은 2만1천254톤으로 4월 2만5천663톤 대비 17% 감소하며 비중은 각각 6.1%, 93.9%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5월말 수입량은 13만2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6천305톤에 비해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위별로는 삼겹살이 1만1천톤으로 한달전 1만2천톤보다 7.8% 줄었으나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절반에 가까운 49.1%로 4.2%p 높아졌다.

그 다음은 목심 6천230톤, 앞다리 2천696톤, 갈비 1천792톤 순으로 4월 대비 목심과 갈비는 29.6%, 25% 감소한 반면 앞다리는 1.8% 늘었다.

국가별 수입량을 보면 미국산 6천460톤으로 전달보다 26% 적게 들어온 가운데 칠레산이 크게 늘어 2천820톤으로 4월 대비 3.7% 늘면서 캐나다를 제치고 2위를 기록하였다.

그 뒤를 이어 캐나다 2천750톤, 프랑스 1천973톤, 벨기에 1천739톤 순으로 전월보다 각각 4.3%,

15.2%, 9.5% 감소하였다.

◆ 중국

돼지 호흡기 증후군 전국적으로 퍼져

중국에서 PRRS(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가 전국적으로 퍼져 돼지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중국의 물가가 들쭉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2일 중국 농업부는 PRRS가 중국 전역 22개성으로 확산, 289개 농가 4만6천여마리가 감염되었으며 1만8천여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돼지 폐사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5월부터 돼지 전염병으로 최소 100만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돼지 값은 5월 들어 전년 동기비 43% 상승하는 등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이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올랐다.

중국 통계국은 돈가 폭등으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비 3.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폴란드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 예측

독일 시장가격 정보센터와 영국 식육가축위원회에 따르면 폴란드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04년 198

만5천톤, '05년 199만톤, '06년 219만4천톤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금년은 218만8천여톤으로 전년 대비 0.3%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처럼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은 돼지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돼지 두수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올해 폴란드 돼지 사육두수는 지난해 보다 10% 가량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04~'06년 20% 이상 크게 증가해온 돼지고기 수출은 올해 '06년과 비슷한 30만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돼지고기 가격도 올라 4분기에는 '06년 동기 대비 30% 가량 높은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미국

돈육 생산량 증가세

미국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4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77만6천여톤으로 전달 84만4천톤 대비 8% 감소하였지만 지난해 동기 73만톤에 견줘서는 6% 많았다. 이에 4월말 돼지고기 생산량은 322만6천톤으로 일년전 314만톤보다 3% 증가하였다.

한편 돼지 도축두수는 847만마리로 전달의 920만두보다 8% 감소한 반면 '06년 동월 796만마리에 비해 6% 늘었다. 그러나 도축 시 평균 생체중량은 122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줄었다.

◆ 대만

육류 안전성 적극 나서

최근 타이베이 aT센터에 따르면 대만은 재래시장 현장 도살 금지 입법예고를 통해 '08년 4월 1일부터 재래시장에서 가축을 도살하거나 그 육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하였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육류를 안전하게 보관, 유통시킬 수 있도록 재래시장 육류 판매상에게 냉장·동 및 진공 포장 기계 구입을 보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만 행정원은 가축 도축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도살 센터에 육류 품질 전문 수의사를 배치키로 하였다.

◆ 일본

1분기 돼지고기 수입 증가

관련업체에 따르면 1분기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통관기준)은 19만톤으로 지난해 동기 17만7천톤에 비해 7% 가량 증가되었다. 이 가운데 냉장 5만5천톤, 냉동 13만5천톤으로 '06년 1분기 대비 각각 3.6%, 8.5%가 늘어 냉동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한국종축개량협회

2007년도 제2회 이사회 개최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6월 22일 축산 회관 소회의실에서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부조직의 통폐합으로 지부인력 활용성 증대 및 사업 확대 도모와 기능직 제도의 부활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기존 운영되던 경남, 전남, 경북, 전북지부를 호남지부와 영남지부로 개정 운영키로 하였으며, 의안 제2호 「자산취득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다.

종돈개량 활성화 협의회 열어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달 21일 정부와 서울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종돈업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돈개량 활성화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종돈 육성과 검정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국가 단위 유전평가를 시행해 15개 안팎의 업체에 검정비를 지원하고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과 ‘울



인 울아웃’을 전제로 시설개선비 등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번식용으로 혈통관리하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합성종이 종축으로 인정받기 위해 축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육질 좋은 일대잡종돈(F1)도 검정을 거쳐 정액을 AI센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하였다.

내년도 종돈 최소시장접근(MMA)물량 배정기준은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 중심으로 배정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종돈장에 대한 물량 배정기준 가운데 검정실적 비중을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하였으며, 국공립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신청물량 모두를 우선 배정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기본물량(1,850마리)의 10%에 한해 우선배정하고 부족할 경우 종돈장 배정기준에 준해 배정키로 하였다. 또한 인공수정(A)센터에는 기본물량의 10%인 185마리를 별도로 배정, 정액증명서 발행실적에 따라 차등 공급하기로 하였다.

최염순 농림부 축산정책과 서기관은 “MMA물량은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 위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형질이 고정되고 육량이나 육질이 우수한 합성종의 경우 업계에서 뜻을 모아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주)다비육종

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



(주)다비육종(대표이사 민동수)은 직원간의 더 나은 의사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드높이고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일, 직원 전체 회의 때 첫 시범 운영을 하였다. GGP, GP 농장과 AI센터 및 자돈사 등 9군데 사업장과 연결하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누락 인원 없이 모두가 자신이 속해있는 일터에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위생 문제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월례 회의에서 민동수 대표이사는 “각 사업장에서 왕복 운행에 관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방역 문제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업무에 대한 효율을 드높이자”고 말하였다.

생산 효율 높이기 위한 소집단 대회 열어

(주)다비육종은 지난 6월 15일, 직원들의 업무 개선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성과를 발표하는 제2회 소집단 개선활동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는 개선 전/후를 비



교하여 업무 효율성을 얼마나 드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샘플을 제시하는 열띤 장이 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주말을 이용한 업무 시간 단축 및 정액 채취와 분주 작업에 대한 분업 실시, 출하대 구조를 변경하여 출하시간 단축, 정확한 기록으로 업무 인계 철저, 정액 희석 작업시간 개선 및 후보돈 순치돈사 정비 등이 있었다. 몇 개월에 걸친 소집단 활동과정에서 각 조원들은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다가 하면, 개선 후 업무 소요시간과 비용 등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날 발표에서는 “정액 보존성 향상을 전제로 한 작업시간 개선”이라는 주제로 제안 활동을 실시한 중원AI센터가 최우수 소집단으로 선정되어 포상이 이루어졌고, 국내 선진혁신 사례연수 기회도 주어졌다.

발표 후 한국생산성본부의 김 진 위원은 “소집단 개선 활동을 토대로 생산운영 시스템 구축을 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다비육종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라고 강평을 하였다.

또한 민동수 대표이사는 “제조업에 익숙한 개선활동이라는 기법을 양돈 분야에 잘 적용을 시켜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듯이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체계화시켜 발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리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앞으로 다비육종은 이날의 내용을 토대로 표준화 하여 사후 관리를 통해 꾸준한 개선 활동 및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이루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주)금보육종

Genesis(캐나다)과 기술교류 협약식가져



(주)금보육종(대표 장성훈)은 지난 5월 31일 세계적인 육종회사 캐나다 Genesis(C.E.O. Jim long)와 기술협약을 통해 앞으로 최고의 종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캐나다 Genesis사를 선택한 배경에는 세계최대의 종돈장으로서 종돈의 규모면이나 돈군의 위생도, 고객관리가 우수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기존에 금보육종에서 해오던 개량 방향과 Genesis사의 개량방향 이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육종기술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하여 선택을 하게 되었다. 6월 20일에 1차분 입

식을 시작으로, 2차분 6월4일, 3, 4차분 8~9월 선발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캐나다 Genesis(C.E.O. Jim long)은 한국에서 금보육종이 종돈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금보육종과 Genesis가 서로 연계가 잘되어 서로 윈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장성훈 대표는 캐나다 Genesis Jim long대표에게 농장준공식에 앞서 협약식에 직접 참석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금보육종은 부계는 마블링이 충실하고 모계는 강건성하고, 등지방이 적당히 있는 것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기라며 금보육종이 생각하는 한국형 종돈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으로 (주)금보육종은 육종 및 사양기술에서 더욱 발전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강원GGP 준공식 개최

(주)금보육종 강원GGP가 지난 6월 1일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준공한 강원GGP 농장은 모든 300두 일괄사육 농장으로 가축계열화 사업의 핵심 종돈장으로 GP 모든 3,000두, 비육모돈 50,000두의 규모의 농장에 후보돈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농장이다. 또한 이로 인한 비육돈 출하 가능두수는 연간 1,000,000두로 경제총생산은 매출액 기준 연 2,500억 규모이다. 이를 돼지고기로 환산하면 50만 톤의 공급이 가능한 수치가 나온다.

시설적인 면에서도 그룹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모든 시설이 최첨단 시설로 지어져 직원들의 작업 편



리성이나 각종 시설의 이용 면에서 효율성이 높게 설계되어 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소모성 질병인 4P 중 PRRS가 주범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PRRS 음성돈군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PRRS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는 질병으로 국내중돈장 중 음성돈군을 유지하는 농장이 몇 안될 정도로 우리나라 양돈에 치명적인 질병이다.

장성훈 강원GGP 대표는 준공 기념사를 통해 이러한 우수한 유전자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중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PRRS 음성돈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고 향후 GP농장도 PRRS 음성돈군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중돈의 위생도를 높여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로 중돈을 수출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동진BLS, 동진물산(주)

“입체순환방식” 정액 보관고 특별 할인 판매

- 특별 할인 판매 기간: 2007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동진BLS(대표이사 김상중), 동진물산(주)(대표이사 김영수)는 무더운 여름철 인공수정 양돈농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정액보관을 위해

정액 보관고의 특별 할인판매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할 예정이다.

본 정액 보관고는 온도 유지에 중점을 둔 입체 순환방식으로, 정액 보관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온도 편차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작, 생산되었다.

제품 생산 13년의 노하우로 제작된 이 정액보관고는 2개의 순환장치 사용으로 내부공기를 수직과 수평으로 순환시켜 상하부의 온도 편차를 줄였으며, 표시온도와 내부온도 편차를 0.3℃로 줄여 정액 보관고에 있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과열방지 센서 부착으로 보관고의 오작동시 과열로 인한 화재 및 보관고의 훼손을 예방하였다. 그리고

신속한 A/S와 수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수리 내역서를 제공하고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보관고 전용 물받이를 장착(선택사양)한 것이 특징이다.

정액 보관고의 최강이라 할 수 있는 동사의 제품을 특별 할인 판매하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할인 판매가격은 300,000원(VAT 별도)이며, 행사기간동안 물받이를 무상으로 장착해 줄 예정이다.

(주)중앙진테크

미국 Des Moines에서 열린 세계 양돈 박람회 참가

(주)중앙진테크는 지난 6월 초 세계 양돈 박람회에 참가하여 현재 수출하고 있는 정액 튜브에 대한 북, 중남미지역 및 유럽지역 수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5월 미국 Continental사의 한국 방문 시 이미 많은 남미국가들이 (주)중앙진테크사의 정액튜브 사용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들었으나 이날 설명회를 통하여 그 인기를 실감하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흡족해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양돈 박람회 보다 먼저 미국에 도착하여, 네브라스카의 Zoltenko와 시카고의 Fox AI센터를 방문하여 자사의 튜브의 실제 호응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먼저 방문한 Zoltenko는 주간 생산수량이 20,000에 달하는 중대형급 AI센터로서 자동화 포장기기인 SPS-21과 함께 (주)중앙진테크사의 180mm 튜브를 사용하고 있다. Zoltenko는 튜브생산자인 (주)중앙진테크의 방문에 반가워하며 저렴한 가격의 높은 품질의 튜브를 생산하여 비용절



감에 기여한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해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Fox AI센터 방문에서는 또 다른 자동정액 분주 봉합기인 Mini BSP와 함께 완벽하게 작동되는 자사의 173mm 튜브를 확인하였으며 어떠한 자동 분주 봉합기에도 잘 호환이 되는 다양한 튜브 공급과 그 수요 및 반응을 실제로 확인하여 수출이 날로 증대할 것이라는 담당자의 당찬 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도드람 유전자 연구소

Waldo farms USA와 “업무제휴 및 기술협약식” 거행



(주)도드람 유전자 연구소(대표 정현규)는 지난 6월 8일 (미국현지시간)에서 Waldo farms USA(대표: Max waldo)사와 '업무제휴 및 기술협약식'을 거행하였다. 본 협약식을 통하여 향후에 계속 진행될 종돈공급문제와 기술이전 및 기술교류 등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Waldo farms USA는 세계최대의 두록(DR) 종돈군(모돈 1,250두)과 백색종(LL, YY 모돈 1,400두)을 가지고 있으며, NPPC(미국돈육생산자협회)육질평가에서 1위를 수상한 114년 전통의 전문 종돈장이다.

(주)도드람 유전자 연구소는 “충북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665번지”에 들어서게 될 신축 유전자 연구소에 Waldo farms USA에서 선발한 최고능력 유전력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음성인 두록 종모돈 1차분 50두를 10월에 입식할 예정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현장방역 올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기간동안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과, 우제류 가축에 대한 시료채취 및 농장방역실태점검 등 가축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 기간 동안 구제역 혈청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소 363호 1,457두, 염소 281호 1,124두, 돼지 240호 1,937두 등 총 884호에서 4,518두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의뢰한 결과 전두수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53,496호에 대하여 농장방역실태점검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우제류가축에 대한 이상축 조기신고 및 검사의뢰를 총411건 (소 325건, 염소 2건, 돼지 84건) 검사의뢰하였고, 그 결과 모두 구제역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전국일제 소독의 날」에는 유관 방역기관과 협력하여 소독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 49명이 473호에 대해 소독활동을 펼쳤다. 또한 외국인 고용농가 333호에 대한 방문 예찰 실시와 교포 모임 자제, 자국 축산물 반입금지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구제역 관련 월간 '방역위생' 정보지, 리후렛 등을 제작해 농가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한·육우 사육농가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자체농가방역 순회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아울러 방역훈련(CPX), 지역방역협의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초등대응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현장직원에 대한 기관장의 격려 방문, 구제역 예방관련 외부원고 기고등 활발한 방역활동을 전개하였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웰빙포크닷컴 '새단장'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가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국내산 돼지고기 홍보사이트 '웰빙포크닷컴(www.wellbeingpork.com)'이 지난 6월 1일 새로운 얼굴로 재단장하였다.

웰빙포크닷컴은 이번 개편을 통해 초기 화면에서 사이트 내의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특히 돼지고기 요리법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많은 점을 반영, 요리법과 관련된 정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페이지가 구성되었다.

축산연구소

'축산과학원'으로 명칭 변경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연구소가 축산과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과학원은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과 증설을 포함한 조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구소 개명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축산과학원 측은 축산업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데다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축산기술연구소와 명칭이 비슷해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명칭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하였다.

앞으로 축산과학원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을 비롯해 동물을 이용한 바이오 장기 생산·신약 개발 등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책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축산과학원은 1952년 중앙축산기술원으로 출발, 1994년에 축산시험장과 국립종축원이 통합되면서 축산기술연구소로 개편된 이후 2001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04년에는 축산연구소로 개명되었다.

(사)대한양돈협회

'내가 만든 고급돈육 자녀건강 나라건강' 최우수상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실시한 '월간양돈 창간 28주년 기념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전'에서 전북 정읍 김영규씨의 '내가 만든 고급돈육 자녀건강 나라건강' 작품이 최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번 슬로건 공모전은 월간양돈 창간 28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한미 한EU FTA 등 세계 개방화에 대비하여 양돈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천사항을 슬로건으로 공모하고, 이를 양돈농가 계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양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7일~6월 10일까지 약 한달간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양돈농가 및 모든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 고품질 안전돼지고기 생산 질병예방 등 차단방역 주제의 슬로건으로 공모를 하였다.

양돈협회는 지난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작품성 및 의미, 참신성 및 아이디어 등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고 16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공모전 최우수상에는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우수상 4명에게는 각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장려상 및 특별상 11명에게는 각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시상된다.

대상팜스코

양돈사료 품질 대폭 강화

대상은 7월 이후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달부터 3개월간 사료 품질 강화 캠페인을 실시기로 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무더위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영양 공급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 고온 스트레스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피그원 믹스'를 첨가함으로써 여름철 생산성 하락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대상은 여름철 사양관리 포인트를 짚어주는 세미나와 함께 정보지를 발송하고 있다. 홍종욱 박사는 이와 관련 여름철 사양관리, 그 중에서도 모돈 관리가 농장 전체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여름철 대비 품질을 강화한 대상팜스코의 사료와 함께 아침·한 밤중·새벽 급여 등 섭취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도드람비엔에프

MSY 22마리 달성 전략 제시

도드람비엔에프는 최근 유성에서 양돈발전전략세미나를 열고 FTA 극복을 위한 경쟁력 향상 및 MSY 22두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박병배 부장은 생산성 향상이 국내 양돈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도 단기간 내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어 우리와 마찬가지로 PMWS는 전 세계적인 문제임에도 선진국 양돈농가들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우리도 사양관리에 매진하면 PMWS 극복과 생산성 향상을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였다.

(주)건지

이노비즈 인증서 획득

(주)건지(대표이사 곽춘욱)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노비즈인증서를 획득하였다.

이노비즈 인증은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주)건지의 이번 획득은 그동안 농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기자재 및 설비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한 결과다.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주)건지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대규모 양계장 및 양돈장에 설비를 활발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제공하는 양돈장의 종합설비를 토탈로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지바이오시스템

도드람B&F 407만주 매수

이지바이오시스템(2,560원 170 +7.1%)시스템은 20일 도드람B&F(1,145원 20 -1.7%) 주식 407만7,000주(7.58%)를 장내 매수하였다고 공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지바이오시스템이 보유한 도드람B&F 지분은 1,761만7,500주로 증가하였다.

한편 이지바이오시스템의 특별관계인들인 도드람비티와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는 보유하고 있던 도드람B&F 지분 전량 장내 매도하였다. 이들이 매각한 주식수가 407만여주로 결국 이번 지분 장내 매매에 따른 이지바이오시스템의 지분율은 32.95%로 동일하다.

알앤엘바이오

그린존 특허 등록완료

알앤엘바이오는 자회사 알앤엘생명과학(주)의 천연물을 함유하는 살균 및 살바이러스 조성물 '그린존' 특허가 지난 8일 등록 완료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성물은 식품으로 사용되는 사과산 자몽종자추출물을 함유하여 안전한 것이 큰 장점이다.

회사측은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해 구제역,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개파보바이러스, 개디스토펙파바이러스, 살모넬라, 연쇄상구균에 살균, 살바이러스 효과가 우수하다고 말하였다.

알앤엘바이오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와 중국 등 해외 거래선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제2종돈사업소 추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14개의 신성장 동력사업을 확정하고 이의 일환으로 제2종돈사업소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종돈사업소는 약 3만평 부지에 5만두 사육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